

# 지난해 광주·전남 '부의 대물림' 30% 늘었다

### 상속·증여재산 1조8629억원

### 전년 대비 4200억원 증가

### 2년전과 비교하면 88% 급증

### 금융자산→토지→건물증여 뺀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부의 대물림'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 상당 증가한 1조86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정의 '2022년 국제통계' 2차 수사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증여세 신고는 1만2093건으로 전년(9038건)보다 33.8% 늘었다.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9814억1400만원에서 1조2400억3900만원으로 26.35% (2586억2500만원) 증가했다. 단순히 계산하면 1건당 1억2544만원을 증여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증여 신고건수가 4238건

에서 5529건(30.46% ↑)으로, 증여재산가액은 5479억9800만원에서 6791억1900만원(23.93% ↑)으로 늘었다.

전남은 4800건에서 6564건으로 36.75%, 증여 재산가액은 4334억1600만원에서 5609억2000만원으로 29.4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피상속인이 지난해 367명으로 전년 279명보다 88명 늘어나 31.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속재산가액은 전년 4603억3100만원에서 6228억1600만원으로 35.30%(1624억8500만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는 피상속인이 152명에서 196명(28.95% ↑), 상속재산은 2484억1400만원에서 3416억4400만원으로 37.53% 증가했다.

전남은 피상속인이 127명에서 171명으로 34.65% 증가했고, 상속재산 역시 2119억1700만원에서 2811억7200만원으로 32.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그 규모는 무려 1조

8628억5500만원에 달한다. 전년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조4417억450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1년 새 29.21%(4211억1000만원)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9년 기준 광주·전남의 상속 및 증여재산이 9923억9200만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 부의 이전 규모가 87.71%(8704억6300만원)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여재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금융자산이었다.

금융자산의 증여는 광주가 1240건으로 전년(742건) 대비 67.12% 증가, 재산가액은 646억6700만원에서 915억1100만원으로 41.51% 늘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378건에서 797건으로 110.85%나 늘었고, 재산가액 또한 393억0600만원에서 652억3400만원으로 65.9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금융자산 증여액 증가율 40%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토지증여는 광주가 1484건에서 1897건(27.83% ↑), 재산가액은 1353억6000만원에서 1679억2200만원(24.06% ↑)으로 늘었고, 전남

은 2668건에서 3645건(11.45% ↑), 재산가액은 1555억5800만원에서 2122억7500만원(36.46% ↑)으로 증가했다.

건물증여는 광주가 1581건→1762건(11.45% ↑), 2183억6800만원→2649억6700만원(21.34% ↑)으로, 전남은 1659건→1956건(17.9% ↑), 1701억1500만원→1874억9500만원(10.22% ↑)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은 광주 436건→500건(14.68% ↑), 953억2400만원→1106억9000만원(16.12% ↑)으로 전남은 327건→383건(17.13% ↑), 487억8400만원→638억3500만원(30.85% ↑)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공세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 증여가 유독 늘어난 것은 증여세 납부 대상자와 납부액, 즉 모수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금융자산의 증가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현금자산의 여력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광주상의 '체크 포인트' 교육

### 5일...교육 교재·수료증 제공

광주상공회의소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상의가 마련한 이번 교육은 '부가세 신고 전 핵심 체크(Check!) 포인트' 교육으로 오는 5일 열린다.

이달 25일까지인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를 앞두고 부가세 신고 절차와 핵심 내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제1기 확정신고에 적용되는 개정법 ▲과세거래(재화 및 용역의 공급, 영세율 등) ▲과세표준과 세액(과세표준 안분계산, 매입세액 불공제 등) ▲예정 및 확정신고 회계 처리 예시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중점 사항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SBS CNBC의 질세전략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 '질세미남 질세미녀'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진성 회계법인의 김우택 회계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i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 전화(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부가세 1기 확정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핵심 사항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시점에 교육,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오는 15일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전반에 대해 다루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 2편' 강좌도 열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 신입행원 16명이 최근 8개월의 직무·수습연수를 마치고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사령장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한전·효성중공업,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협력

### 업무협약...협업 모델 구축

### 국내·외 유틸리티 시장 진출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효성중공업과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분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간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전의 전력설비 예방 진단 기술과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분야 기술을 접목한 신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유틸리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효성중공업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예방진단과 자산관리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정승일 한전 사장은 "기존 기술교류 및 업무협력 뿐만 아니라 신규 솔루션 개발을 통한 사업화 부문까지 나아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전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고품질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해 양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예방진단·자산관리 부문 생태계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삼성전자 25kg 용량 전자동 세탁기 '그랑데 통버블' 출시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25kg 용량의 전자동 세탁기 '그랑데 통버블'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랑데 통버블 25kg 신제품은 강력한 세탁 성능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고 삼성전자를 설명했다. (사진)

세탁물 위로 물을 쓰는 '제트샷'은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세탁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30분만에 세탁이 가능하다. 또 이 기능을 사용하면 물과 전력 사용량도 함께 절약된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인버터 모터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부품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해주는 '평생보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출고가는 119만9000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6월 국제선 여객 코로나 이후 첫 100만 돌파

### 항공사들 운항 확대 본격화

정부의 항공 정책 정상화와 항공사들의 운항 확대에 따라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월 2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제선 여객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연말까지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국제선 운항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와 업계의 목표 달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국내선 여객 수는 460만1000명으로 전달(439만8000명)보다 4.6% 증가했다.

국내선 여객 수는 5월 345만7000명에서 6월 332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국제선은 5월 94만1000명에서 6월 128만명으로 36%나 증가했다.

국제선 여객의 경우 작년 6월 24만6000명과 비교하면 420%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국제선 여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국제선 여객은 올해 3월 41만1000명, 4월 65만명, 5월 94만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년 2개월만에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퓌)을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인천

공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24시간 운영 중이다.

김포공항도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을 2년 3개월만에 재개했다. 한국과 일본 4개 항공사가 현재 주 8회 운항 중이며, 2019년 수준인 주 84회까지 점차 운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역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부정기편을 운항 중인 지방 공항도 이달부터는 규제가 해제되면 정기편 운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제선 증편 허가도 별도의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재개와 증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50%대를 회복할 계획이다.

인천-뉴욕 노선은 이달부터 주 12회로, 8월부터는 주 14회(하루 2회)로 증편된다. 인천-파리는 주 7회로 매일 1회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주와 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중국과 일본 노선 운항에 집중했던 LCC(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재개 속도는 FSC(대형 항공사)와 비교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 할인

###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은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원래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도 확대됐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번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연합뉴스

### 국내 제조기업 91%

### "하반기 공급망 여건

### 상반기와 비슷 하거나 악화"

국내 제조기업들이 자사 공급망 경쟁력을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공급망 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22~27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제조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공급망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자사의 현재 공급망 경쟁력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8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특정 지역 봉쇄 등으로 인한 팬데믹 리스크'(35.3%), '우크라이나 사태나 국제정세 불안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30.7%), '운송 지연이나 파업 등 물류·운송 리스크'(27.5%) 등을 꼽았다.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한 기업은 6.0%에 그쳤다. '검토 중'이라고 답한 기업이 44.0%로 가장 많았고, '검토 예정' 기업은 35.3%였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비슷(48.0%)하거나 악화(42.7%)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90.7%에 달했다.

공급망 개선을 위한 내부 대책을 묻자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재료·부품을 조달해 대체 공급망 구축'(38.3%), '동일 제품을 타 거점에서도 생산'(22.1%), '재료·부품·제품 재고 확대'(12.1%), '스마트 제조 및 생산 자동화를 확대'(11.1%) 등으로 답했다.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수급처 다변화를 위한 거래처 정보제공 및 지원'(32.3%), '글로벌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 경보 시스템 강화'(22.0%), '공급망 리스크 민감 품목 관리·지원체계 고도화'(17.3%) 등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2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6	11	29	42	45	2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866,468,075	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371,271	63
3	5개 숫자일치					1,571,857	2,580
4	4개 숫자일치					50,000	127,962
5	3개 숫자일치					5,000	2,155,059